

제24절 신화1리(新花一里)[속명: 새마]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백석산(白石山)과 대실곡(大室谷), 진개골, 세목골을 경계로 원자력발전소부지 일부와 닿아있으며, 서쪽은 중등(中嶺), 화리곡(花里谷), 남쪽에는 뒷땅골, 만금산(萬金山)이 있고, 남서쪽에는 이막골뒷산과 성황산(城隍山)이 있다. 북쪽에는 배골재(梨項嶺)를 경계로 부구리(富邱里)와 닿아있다. 마을회관은 2008년에 신축하였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1979년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마을 앞에 7번국도가 이설되어 마을이 양분되면서 원전 건설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본 마을이다.

2. 마을의 역사

1520년경에 의령 여씨(宜寧余氏)가 평밭(平田)을 개척하여 살다가 1630년경(인조 8) 전 호선(田鎬璵)이라는 선비가 마을에 입주하여 마을을 주도(主導)하자 여씨(余氏)들은 어디론가 이주하고 전씨(田氏)가 새집을 짓고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였으므로 새마라 하였다. 이후 200여 년 전에 울진 장씨들이 세거하였다. 마을의 형국은 ‘가마솥 형국’이라 하여 마을의 사방 네 곳에 ‘불(火)’과 관련된 시설물을 조성해 마을의 정기를 존속했다고 전한다. 마을은 평밭, 양지마, 징계골, 이막골, 거랑마, 서당마, 산끝머리, 청룡거리, 대실골, 모시골, 독박골로 나눈다. 서당마 구장정사 뒤쪽에 성균 진사 전구원을 기리는 유허각이 있다. 구장정사는 우와 전구원과 만든 전선 선생을 모시는 사우이다. 최근에 증건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새마란 신자(新字)와 화리(花里)란 화자(花字)를 따서 신화리(新花里)라 불렀다.

3. 가구 분포

총 68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장씨(蔚珍張氏), 담양 전씨(潭陽田氏)가 주종을 이루는 집성촌이며, 김해 김씨(金海金氏),新安 주씨(新安朱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장사(龜藏祠)

구장정사는 우와(愚窩) 전구원(田九畹)[1614~1691]과 만은(晩隱) 전선(田銑)

[1599~1693]을 모시는 사우이다. 전구원의 유허비와 유허각, 강당인 구장정사가 현존한다. 2015년에 개축했다. 우와는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의 사사를 받아 올린 유학의 체계를 세우고 집대성했다. 「태고헌향음주서(太古軒鄉飲酒序)」를 집필하고, 문집으로 『우와집(禹窩集)』 2권이 전한다. 전선은 상촌(象村) 신흠(申欽), 우암 송시열의 사상을 좇았으며, 연산군 당시 ‘이이첨(李爾瞻) 능지처참 소(疏)’를 올린 유림을 대표해 올렸다. 『만은집(晩隱集)』이 전한다.

2) 만금산(萬金山)

이 산(山)은 조선시대에 현령(縣令)이 지나가다가 금(金)과 같이 중요한 산이라 하였고, 마을 사람 유추거사(有秋居士)와 임만휴(任萬休) 선생과의 문답(問答) 중에서도 이 산을 만금(萬金)과 같다 하여 만금산(萬金山)이라 불러오고 있다.

3) 성황당(城隍堂)

마을 안에 있는 소나무 성황(城隍)으로,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4) 청룡거리(靑龍街)

조선 말엽에 전경숙(田慶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출생하자마자 일어나 앉고 말을 하고, 장사였다.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빨랫돌과 콩 3가마를 아이의 등에 올려서 놀러 죽었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소나기가 오더니, 청룡(靑龍)이 하늘에서 내려와 크게 울고 사라졌다 한다. 청룡이 내려온 자리에 청룡의 발자국이 있어 청룡거리라 전(傳)하고 있으며, 지금도 청룡의 발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

제25절 신화2리(新花二里)[속명 : 화리(花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신화2리는 쇠치봉의 지맥(支脈)인 뚜골재 대골산(山) 넘어 산등(山嶺)에 있는 마을로, 동쪽은 새마(新里)와 접하고, 서쪽은 깃대산(山) 천지소(天地沼)가 있으며, 남쪽은 마을 앞 산(山) 너머에 만금산(萬金山)이 있다. 북쪽은 대골과 부구리(富邱里)가 있다. 마을회관은 2018년에 개축하였다.